

민주당, 공공의료 확충 방식 논의...“정책 철회는 아니다”

광주·전남 전공의 90%대 파업 참여 환자 불편 가중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정면충돌을 지양하고 파업사태를 수습하는 데 무게를 실으면서 의정갈등이 풀리지 주목된다.

광주에서는 2일 현재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529명 중 487명(92%)이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98%가 파업에 참가한 지난달 26일 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전남에서는 113명의 전공의 가운데 103명이 집단휴진에 가세한 상황이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선 96명의 전공의 가운데 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립나주병원에선 9명 중 8명이 휴진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대전제는 지키되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을 놓고는 한발 물러서며 본격적인 절충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2일 한창에 정책위의장은 전남 최대집 대한의협회장과 만나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일단 “정책 철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세 가지의 대전제”라며 “나머지는 방법상의 문제로 공공 의대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공공의료 확충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 더 이상 내용을 카드가 없으며 의사들의 복귀를 압박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어제 한 의장이 공개적으로 (재논의를) 얘기한 것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명문화보다 100배 효과가 있는, 훨씬 강력한 공론”이라며 “대화를 잘해서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 방침을 고수하던 민주당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발 벗고 나선 배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 고착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는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 불안을 없애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책임지고 빨리 정리하고, 국회가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혜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사들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김태원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등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동시에 밀어붙이니 강한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낙연 “추경 편성해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

“김종민 위원장 정책 협치 동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당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곤 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코로나가 훨씬 더 진정되도록 참고 견뎌야겠다”고 국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의 집단휴진(파업)에 대해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의 권

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전남 미래통합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4개 야당 예방과 관련, “저를 포함한 5개 정당 책임자들은 위기 극복에 협력하자는 것, 민생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생 지원 방식에 대한선 약간의 견해차도 있었지만, ‘시급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통합당 김종민 비상대책위원장에게 4·15 총선 공약 입법화, 양당 공동 성장정책 입법화, 국회 4개 특위 조속 가동 등 3가지 정책 협치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라며 “정책 협치를 통해 협치의 범위를 넓

혀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당과 정부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당은 그 한 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대한민국과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수석은 이 대표가 전대 승리 후 제시한 5대 과제를 거론,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킨 내용”이라며 “특히 야당과의 ‘원칙적인 협치’를 말한 것, 내용적인 협치를 말한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 존중하고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전광훈 회견, 적반하장도 정도 있어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반성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미안한 시늉이라

도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한 전 목사

는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부정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마스크 벗고 떠나는 기차여행을 꿈꾸어 본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7) 여행

평소에 여행을 즐겨하지 않는 편이어서 스스로 집콕이나 방콕을 더 좋아하는 집순이에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안가고 떠나지 않았던 것과 사회적 금기로 못가고 가지 않아야 하는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주위에서도 이 즈음이면 컷바람 쐬며 휘이휘이 다녀온 여행담으로 행복해하던 이들이 코로나로 받아 묶여 답답함에 우울해한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오거스터스 레오폴드 에그(1816-1863)의 ‘여

행 친구’ (1862년 작)는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기차에 몸을 싣고 있는 듯 마음 설레게 한다. 똑같이 옷을 갖춰 입은 것으로 보아 아마 주말이 것으로 짐작되는 두 여성이 기차를 타고 여행 중인 것 같다. 옆 좌석에 한 아름의 꽃다발과 과일바구니는 어느 곳의 방문할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는가 보다.

왼쪽 여성은 모자와 장갑을 벗고 편안한 자세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다. 반면 오른쪽 여성은 꼭맞는 장갑을 끼고 잠든 여행친구가 못마땅한지 살짝한 표정으로 독서에 집중하고 있다. 열린 창을 통해 멀리 바깥 풍경이 보이는데 그림 속 풍경은 화가가 만년에 나빠진 건강 탓에 온화한 기후를 찾아다녔던 지역 중의 하나인 모나코 북부 몬테카를로 근처의 도시 망통일 것으로 추측된다.

19세기에 철도가 발달했던 유럽에서는 그 덕택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레오폴드 에그 작 '여행 친구'

많아졌는데 기차여행길에 책은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다. 특히 기차 안에서의 독서는 유행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풍조를 두고 당시 학자들은 기차여행자들이 독서하거나 잠드는 바람에 창밖의 풍경을 놓치는 것을 빗대어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를 할 정도였다.

집 떠나면 고생길일지라도 잠시 일상에 벗어나 잠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 좋았던 날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마스크 벗고 동행자와 커피 한잔 마시며 담소하며 떠나는 기차 여행을 꿈꾸어본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신세계안과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 스마일 라식·라섹 | 녹내장 |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의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